

북만주·삼강평원에 걸친 한민족 인문 역사 순례

북행

허성관 지음

신간 '북행' (北行)은 광활한 만주벌판과 내몽고 자치구에 남아있는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직접 두 발로 찾아간 인문 역사 순례기이다. 저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은퇴한 후 역사학에 빠져든 저자는 2013-2018년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와 함께 중국으로 역사 답사여행을 떠났다. 저자는 신간 서문에서 "주제를 정해 역사현장을 밟고 눈으로 확인하는 답사는 청춘을 되살리는 즐거운 여행이었다"면서 "책을 통해 역사적 근거를 찾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이 확실하다"고 밝힌다.

저자는 크게 ▲북만주, 호루팡이 초원을 가다 ▲동간도와 서간도를 가다 ▲산동성, 흥산, 요서를 가다 ▲우리 민족문명의 시원, 삼강평원 등 4부로 나눠 역사문화 순례기를 풀어낸다. 끝없이 펼쳐진 만주 벌판은 선비족(북위)과 거란족(요나라), 여진족(고구려), 만주족(청)을 비롯해 한민족의 뿌리인 부여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주무대였다. 또한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대일항쟁기)에는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다.

저자는 만주벌판 수만 km를 답사하는 여정 속에서 상고시대 '홍산 문화'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장구한 시간여행을 떠났다. 저자는 "단체 신체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우리 민족을 '부여족'으로 정의했다"면서 우리와 친연성이 높은 그들(북방민족)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북방민족사



우수리강 지류인 묵룡하에 자리한 '서일총재 항일투쟁유적지' 기념비를 찾은 답사단.

(인문서가 제공)

를 우리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리해야 한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먼 후일 반드시 크게 쓰일 것이다. 대륙성과 해양성이 발휘될 때 우리 민족은 융성했다. 북방민족사 연구는 바로 우리 역사에서 대륙성을 회복하는 기초 작업이다."

저자는 장대한 답사여행을 통해 체험한 일제 식민사관의 오류와 중국 동북공정의 현주소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흑룡강성 박물관에 전시된 발해의 청동 기마상은 동북공정 논리를 반영해 '당(唐)발해' 유물로 표기되어 있었다. 산동성 '치우천황 묘'와 '기자 묘'는 어렵사리 방문할 수 있었지만 내몽고자치구와 흑룡강성 경계에 자리한 부여 유적지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저자는 상고시대-일제강점기에 만주 벌판에서 펼쳐진 한민족과 북방민족의 역사를 씨줄로 날줄로 섬세하게 엮어낸다. 피록에 새겨진 무늬는 오묘한 우리 역사 그 자체다. 명칭 교체기 역류된 강홍립 장군의 부대원

들에 의해 송평원 벼농사가 시작되고, 독립군들이 '절레꽃'을 애창했다는 내용은 새롭다. 특히 1913년 북간도에서 최초로 조직된 조선인 자치단체로 민주공화정 씨앗이 된 '간민회(鑾民會)'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신민회·혁신 유림·양명학자, 북단강시 '팔여투강(八女投江)'기념상'에 새겨진 안순복·이봉선 등 일제강점기 만주 벌판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독립을 열망하며 투쟁했던 공간과 선각자들의 이야기가 울림을 준다.

저자는 유형·무형의 과거를 기억하고 찾아내고자 하는 까닭에 대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미래의 그들을 위해서"라고 답하며, 신동엽 시인의 '금강' 중 "옛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거름을 남기는 곳"이라는 시구를 인용한다. "프랑스 시인 루이 아라공의 시구처럼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멀리 앞을 내다보는 한 그루의 나무'이기 때문이리라."

(인문서원·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신유물론X페미니즘-몸 물질 생명=신유물론과 페미니즘을 함께 다루고 두 개념을 접목시킨다. 신유물론에 기반한 페미니즘이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준다. 로지 브라이도티가 '젠더'가 아닌 '성차' 개념에 주목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페미니즘 담론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과학기술을 적극 끌어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여이연·1만6000원>

▲HIT의 과학='스웜 플랭크', '하이니', '하이 플랭크', '앵글 탭' 등 다양한 운동 동작들의 실제 자세를 보여주면서,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삽화로 제시했다. 단계 별로 강도 높은 고강도 트레이닝을 반복하는 체력 단련법인 HIIT(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은 총 20여 분 동안 각자의 체력 단계에 맞춰 여러 가지 동작을 각각 30-60초 간 반복하는 운동이다. 낯설지만 강력하게 많은 지방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개념이다. <사이언스북스·2만5000원>

▲히딩크 리더십과 손자병법=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히딩크 리더십의 성공을 손무의 '손자병법'에 빗댔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춘추전국시대에 활용됐던 방법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사상서'라는 관점이 담겨 있다. 히딩크가 대표팀을 선발하고 관리, 운영해왔던 사례를 손자병법의 주요 구절들과



과 연계 삶의 지혜로 인도한다. 또 개인이나 조직이 맞닥뜨리는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진정한 방법'을 모색한다. <시간여행·1만5000원>

▲시민국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사회, 역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교육'이 그동안 서구 중심의 시각에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전세계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초점을 맞추길 촉구한다. 세 가지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학생들이 타인의 환경에 대해 배울 것', '멀리 있는 타인의 목소리를 들게 할 것', '오늘날 정책과 관행 중 학습한 것과 맞물리는 것을 판별할 것' 등이 그것이다. <역사비평사·2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지구와 나=기후위기 앞에서 지구의 역사를 그림과 이야기로 들려준다. 현생 인류는 지구에 나타난 지 30만 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인류가 일으킨 기후 변화는 우리를 다섯 번째 대멸종 위기에 처하게 했다. 단순히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교조적으로 담기 보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이 태어나기 전후 모습과 생명 진화, 멸종의 과정 등을 부드럽게 서술했다. <푸른숲주니어·1만6800원>

▲정말 정말 신기한 숲속의 전설 백과사전=사춘기 때까지만 에린과 노라는 다락방에서 할머니의 어릴 적 공책을 발견한다. 책에는 숲속에 사는 신비로운 존재들

에 대한 전설이 가득 써져 있다. 들은 공책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전설을 조사해 나간 뒤 주변 아이들과 전설을 나눈다. 숲에 대한 상상력, 동식물에 대한 지식 등을 키워 나간다. <벨글·2만 원>

▲팔: 나 심은데 나 자란다=팔을 매개로 부모님들의 어린시절을 들여다 본다. 가슴팍에 1000원 짜리 지폐 몇 장을 품고 봉어빵, 호빵 등 먹거리를 사먹던 시절 이야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어느 겨울날 이불 위에 앉아 배탈이 나버린 어린 오빠를 대신해, 동생 임진이는 봉어빵을 먹으며 배앓이 빠지도록 웃는다. <세미콜론·1만2000원>

규격화하는 폭력의 세계 속 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부분은 전체보다 크다

임동화 지음



임동화 작가의 말처럼, 시인은 어쩌면 이런 사람일지 모른다. "곧잘 이제껏 마주친 적 없는 우연의 얼굴, 들리지 않은 침묵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나 "꼭 한번은 기적처럼 저마다의 목소리와 음색을 가진 노래의 리듬과 마주친 채"(시 '노래와 시인' 중) 완성되지 않은 음악을 여전히 연주하는 사람.

임동화 시인이 시집 '부분은 전체보다 크다'를 출간했다. "연이은 재난의 시대 속에서 아주 먼 곳이면서 실상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울려나오는 희미한 누군가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쫓긋하며" 써 내려간 글들이다.

"진경산수도", "곤혹과 웃음 사이", "노래와 씨앗",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 등 4부로 엮은 시집에는 모두 60여편의 시가 담겼다.

표제작인 '부분은 전체보다 크다'는 흔히 전체를 부분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에 균열을 낸다. 모든 것은 저마다 존재 이유와 가치를 갖고 있기에 그 누구의 삶과 그 어떤 생명체도 허투루 여겨서는 안되며,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우고 감춰서도 안된다는 경고다.

그에게 부분은 모든 전체보다 크거나, 무겁거나, 무한하다. 그래서 "절길 아래 깔린 무수한 포석의 하나가/시속 300km의 고속열차를 넉넉히 감당하는 중이려면/때로 제지할 틈 없이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어떤 경우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예외 하나가/문득 새로운 세계의 심장에 닿는다면/부분이 전체보다 먼저다/백권의 역사서보다 김중삼의 '민간인' 한 편이/더 깊고 슬픈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면/모든 전체는 허구다/모든 부분 그대로가 전체"라고 노래한다.

"무심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면서 나를 자꾸 어디론가 불러내고 떠나는 거부할 수 없는 미지의 인력(引力)"에 의지해 시를 쓰는 그는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 앉아 "여태껏 들린 적 없는 흰 데드마스크를 잠시

벗어 내려놓고(중략)/비로소 제 스스로를 위해 연주하며 가만히 한 발씩 내딛는 너를 느끼고(침묵)" "애써 쌓아올린 인류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역사적인 세력"에 당당히 맞서 5·18 40주기를 기록한 '사심 년'을, 이태원 참사를 읊은 '축제'를 썼다.

"한 시인의 눈이 여전히 광속보다 빨리 사라지는/영원의 어깨를 붙들고자 밤새 앞서 달려가고 있다면", 언제나 부분은 전체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시인은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평균화하는 근대적 폭력의 세계속에서, 당분간 각자마다 결코 공통분모로 환원할 수 없는 심연과 높이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선언한다.

"시는 수동태고, 역설이고, 절정이고, 순정"이라고 말하는, 시인이 직접 쓴 '운명을 위한 각서, 군벌의 시론'은 그의 시 속으로 들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임 시인은 지금까지 '매장사면',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등의 시집과 시론집을 펴냈다.

<황금알·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